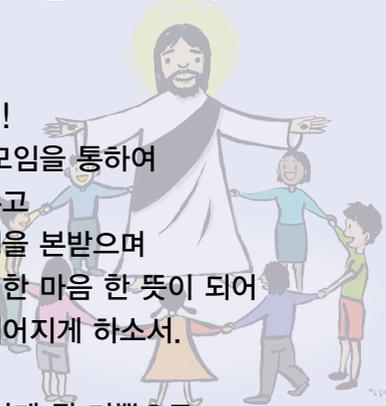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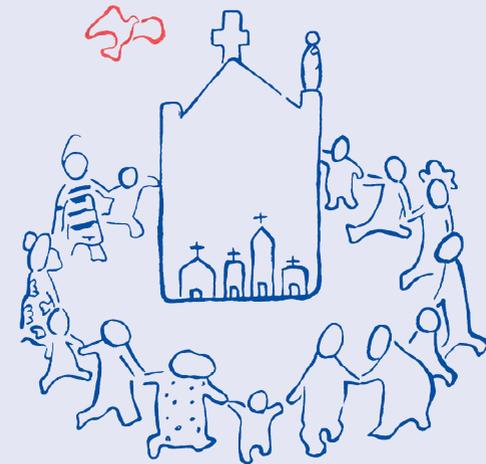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연중 제19주일(8월 11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 12,32-48)



### 게으른 종

- 니콜라스 마스, 1655년, 패널에 유채, 영국 국립미술관 소장 -

니콜라스 마스의 '게으른 종'에서는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럽게 물건을 늘어놓은 채 부엌에 앉아 졸고 있는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은 졸고 있는 종을 손으로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불 때 깨어 있는 종들!"(루카 12,37)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서울주보, 2013. 8. 11.

###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장 “주 하느님 크시도다”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돌보시는 주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소서.
-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12장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2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33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썩어 썩지도 못한다. 34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불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



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41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42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43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46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루카 12,35)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루카 12,37c)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세상은 주인과 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회다. 처음엔 종이 졸린 눈을 비벼서라도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전해준다. 종은 허리에 띠를 매고 당장이라도 돌아올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세상은 주인이 와서 허리띠를 매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세상이다. 종이 기다리는 상황이 마치 어린 자녀가 잠시 일보러 나가신 부모님께서 맛있는 귀가 선물을 사들고 돌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온 생애가 선물을 기다리는 삶이다.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삶이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장 “주 하느님 크시도다”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연중 제20주일(8월 18일) 세례 받은 이의 사명 (루카 12,49-53)



## 성령 강림 <부분>

- 엘 그레코, 1596-1600년, 캔버스에 유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알고 믿으며 살아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참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8. 18.

##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 방패이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저희 구원자이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시어 저희 찬양 받으소서.
- 주님, 저희와 함께하시어 이 모임을 이끌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열정이 생겼습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12,51)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까?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이 받은 세례에 힘입어 선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마태 28,19 참조). 세례 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따라서 복음화 계획은 전문가들이나 수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주도적

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복음화 활동을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데에 오랜 준비나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기쁨 120항)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하느님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필용동본당 구역분과장 홍성미(유리안나)-

‘소공동체 활성화’ 반장(구역장)으로서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지난 6월에 있는 구역분과위원장 모임에서 소공동체에서의 ‘소’는 적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소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팔용2반은 40~70대 8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형님들이 많습니다. 매달 성경을 한 시간 읽고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반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지명이 어렵고 낯설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듬거리며 읽다 틀리게 되면 “와 이리 어렵노?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하시며 한바탕 웃고 지나갑니다. 말씀에 맞들이게 된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그 무거운 성경책을 꼭 안고 오십니다. “반장아,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복음에 나왔다.”하고 좋아하실 때도 많습니다.

새로 오신 신부님께서 반 모임에 초대하면 언제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중 혼자 계시고 자식들도 멀리 있어 외로우신 우리 반 형님들이 생각나 신부님 초대 제안을 했습니다. 좋으시면서도 “반장이 힘들어서 우짜노.” 하며 걱정하시던 형님들이 저희 집으로 무거운 수박이며 국과 나물 등 음식을 한 가지씩을 준비해오시던 그날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신부님을 모시고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최대한 집중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돌아가면서 마침기도를 하자는 신부님 말씀에 늘 하느님을 뵈고 싶어 하시던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 자유기도를 힘들어 하시던 형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은 시간이 되면 꽃구경도 가고 온천도 가고 맛집도 갑니다. 지난봄에는 사천 금호지로 가서 벚꽃 구경을 가던 길, 문산본당에 들러 초록 잔디를 밟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나무 그늘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혹은 이미 오래 전에 하느님 곁으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우리 반 형님들이 하느님 말씀과 소공동체에서 나누는 친교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와 단체 - 상호보완적 관계

#### | 소공동체가 하기 어려운 일은 단체에서 맡습니다

소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레지오의 고유한 신심활동, 청년활동, 노동사목, 여성연합회, 주일학교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떤 단체나 연합회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체 모임들도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소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본당 단체들은 소공동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일을 맡아 수행해야 합니다.

#### | 단체에서 하던 일 중 소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공동체에 맡깁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이나 병자 방문 같은 사목활동을 단체에 소속된 몇몇 사람들이 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동네의 환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자주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방문합니다. 세례 때에 받은 평신도 사도직으로 이런 활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방문하거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꼭 어떤 단체에 소속될 필요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소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 | 소공동체와 단체는 형제 관계입니다

본당 단체들과 소공동체들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과 겸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단체들마다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 카리스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활성화 하는 데 모두가 협력하되 그들의 활동을 소공동체가 담당하지 못하는 범위로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 | 단체 구성원도 지역 소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큰 단체에 소속된 단체 구성원일지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소공동체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 됩니다. 어느 구역에서든지 세례 받은 신자들은 모두가 소공동체 구성원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큰 단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 소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 ■ 신임 소공동체장 연수

- 일 시 : 9월 2일(월) 10:00~15:30
-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 상 : 신임과 재교육을 원하는 소공동체장
- 참가비 : 1인 10,000원(자료집, 점심 제공)
- 준비물 : 필기구, 개인컵